

‘오월 사적지’ 옛 광주적십자 병원, 역사교훈관광 거점 된다

5·18기념재단, 최종 용역보고회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오월 방문객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헌혈 행렬이 줄을 잇고 시민군을 치료했던 공간으로 광주공동체 정신의 상징과도 같은 적십자병원을 역사교훈 관광의 거점공간으로 만들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는 이번 연구용역 등을 참고해 2023년 설계용역을 거친 뒤 2024년 본격적인 개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5·18기념재단은 14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기록관에서 열린 ‘오월길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옛 광주적십자병원 공간 구상과 활용방안’과 2012~2022년 5·18기념재단이 운영한 오월길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특히 이번 용역결과 안에는 민간에 넘어갈 위기에 있었던 옛 광주적십자병원에 대한 활용방안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지난해 8월 광주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해 전체 4

3개 동 철거하고 본관만 살려 오월 방문객 휴식공간으로 전시·도서열람·창작공간·게스트하우스 등 2025년 개관

개 동 중 기아보호소, 영안실, 별관, 창고는 철거하고 본관동을 개축해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안전진단 결과, 병원 본관동·별관·창고·영안실 등은 ‘D등급’, 기아보호소는 ‘E등급’ 판정이 내려졌다. 본관동을 비롯한 4개 동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기아보호소 건물은 부재(部材-건축물 뼈대를 이루는 재료)에서 심각한 결함이 확인돼 즉각 사용 금지 후 보강해야 한다는 전문가 판단이었다.

용역팀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501㎡ 규모의 본관동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 1층에는 여행자 안내센터·기획 전시공간·도서열람 공간 등을 제안했다.

2층에는 다목적 회의실·청년 창작공간·체험공간·아트뮤지엄 등의 공간구성을 내놴다.

5·18 당시 피가 모자란다는 소식 하나로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 헌혈을 했던 역사적 장소인 3층에는 헌혈보존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나머지 병실은 개조해 최대 62명을 수용할 수 있는 16개 방으로 구성된 게스트 하우스로 탈바꿈시키자는 안

을 내놴다.

4층 옥상에는 정원을 조성해 야외극장, 중공품 나눔장터 장소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에게 개방해 문화 파크존으로 활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내년 초 5·18단체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옛 광주적십자병원 건물 활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해 확정된 활용안을 바로 설계용역에 반영해 2024년부터 철거와 개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연말안에 문을 열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한편 1965년 개원한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1996년 서남학원재단이 사들여 서남대 부속병원으로 활용했지만 경영이 악화되자 2014년 휴업에 이어 2018년 교육부 법인 해산, 폐교 결정에 따라 자산 청산했다. 이후 공개 매각절차가 진행됐지만 5·18 사적지 보존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광주시가 2020년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옛 광주적십자병원. 광주시는 오는 2025년 연말까지 이곳을 철거·개축해 역사교훈관광 거점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명칭 ‘5월 광주항쟁’으로 바꿔야”

재단·오월 3단체, 오늘 국회 토론회서 제안키로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명칭도 ‘5월 광주항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정신과 헌법 전문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1987년 개헌시, 2018년 정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 등을 통해 5·18의 민주주의 정신을 헌

법 전문에 수록하고자 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헌법 전문 자체가 추상적·선언적 공포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헌법 본문의 각 조항들을 지배하는 근본원리로서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의 작용 및 국민의 헌법생활에 관한 궁극적 기준이 된다”면서 “5·18은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민주화 전환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제 5·18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어 “5·18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회

복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점, 전(前)국가직·초(超)국가적인 자연권으로 인정되는 저항권의 행사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미 헌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국민들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개헌과제다”고 덧붙였다.

‘5·18민주화운동의 명칭 문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식 명칭의 변경을 제안했다.

헌법 전문에 5·18을 담는다면 ‘5·18민주화운동’의 명칭에는 시간·장소성과 주체의 변형성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오래 지역 편견과 지역불균형 발전이라는 역사 과정에서 팽배해온 ‘광주’에 대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씻기 위해서라도 헌법 전문에 실리는 5·18의 공식 명칭을 ‘(1980년) 5월 광주항쟁’ 혹은 ‘광주 5월 항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멸종위기’ 양비둘기 방사 후 자연번식 성공

구례서 2개체 포획 고흥에 방사...야생 개체군 이전 증식 첫 입증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있던 우리나라 토종 비둘기인 ‘양비둘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사진)가 방사 후 자연번식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전국에 160여 마리만 서식하고 있는 양비둘기가 멸종위기에 처하자 개체수 증식을 위해 지난 8월 구례에 살던 2마리를 포획해 고흥 연방사에서 한달간 적응훈련을 시켰다.

이후 9월 방사한 양비둘기 2마리(암컷과 수컷)의 위치 추적 결과, 한달 뒤인 10월 23일 고흥의 해안가 갯바위 절벽의 조그만 굴에서 새끼 양비둘기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건강한 야생 개체군을 일부 이전해 약화된 소규모 개체군을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최초로 입증됐다는 것이 국립생태원의 설명이다.

양비둘기는 1980년대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서식하는 텃새였지만, 집비둘기와의 경쟁에 밀리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현재 구례군에 60여 마리, 연천군 100여 마리, 고흥군 5마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천희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양비둘기는 몸길이 33~35cm, 허리는 흰색이고 꼬리는 회색빛이지만 중간에 흰 띠가 있고 끝이 검은색을 띤다. 날개에는 뚜렷한 검은 줄 무늬 두 개가 있어 집비둘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3학년도 정시 대입정보 박람회

대교협, 오늘 서울서 132개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17일 서울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 132개 대학이 참가하는 ‘2023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연다

고 14일 밝혔다.

박람회장에 마련될 ‘대학별 상담관’에서는 각 대학 교수와 입학사정관, 교직원들이 해당 대학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입학 정보를 설명할 예정이다.

‘대입정보 종합자료관’에서는 수험생이 직접 전

국 대학의 학과정보, 전형정보,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도 홍보관을 꾸리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1000원이며 고교 단체관람객은 사전 신청한 경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입장권 예매 정보는 대학입학정보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